



예수마음교회



Contents

1. 예수마음교회는	04	*
2. 목회자	07	
3. 주일예배	10	
4. 예배 및 모임 안내	12	
5. 교회생활 안내	16	
6. 교육	20	
나가는 말	23	



1 예수마음교회는

예수마음교회의 교단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교단입니다. 영락교회, 새문안교회, 온누리교회, 소망 교회 등이 소속되어 있는 개혁교회 전통을 고수하고 있는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교단입니다. 신학교는 광나루에 있는 장로회 신학대학교를 비롯하여 서울장신, 대전장신, 부산장신, 호남장신, 영남장신, 한일장신 등 각 지방마다 있습니다. 학교들은 연세대, 숭실대, 서울여대, 계명대를 비롯한 전국에 있는 대부분의 미션스쿨들이 저희 교단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예수마음교회는 15년 전에 개척되어 지금까지 어려움도 있었지만, 매년 내외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마음교회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말씀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말씀묵상, 말씀

통독, 말씀공부, 설교를 통해서 한 걸음씩 말씀을 사랑하는 여정을 걷는 것입니다. 목회자부터 설교나 성경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성도들도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는 교회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자리, 어머니의 자리, 아들과 딸의 자리, 아내와 남편의 자리를 교회가 빼앗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저녁 모임을 갖지 않으려고 합니다. 교회 때문에 가정들이 단단해지고, 교회가 가정을 배려하고, 교회로 나오게 하는데 힘쓰지 않고, 가정으로 돌아가서 충실하게 가족의 구성원으로 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교회입니다. 사람이 모든 것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늘 하나님의 자리를 존중하며, 하나님을 기다리는데 힘씁니다. 하나님이 하심을 믿기 때문에 교회는 프로그램이나 활동을 되도록 자제하면서 하나님께 의존된 교회가 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교회가 심심하고, 모임이 거의 없음을 무미건조함으로 느끼기 보다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는 여백과 비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채움과 충만하심을 경험해 나가도록 합시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더디고, 잘 안되더라도, 재미가 없더라도 이 과정을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잘 견뎌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모세의 미디안 40년, 바울의 아라비아 광야, 세례요한의 광야, 야곱의 밧단아람, 다윗의 유다광야의 삶을 살면서 여호와께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는 고백에 이르고자 합니다.

지난 15년 더딘 것 같지만 단단하게 지내 왔습니다. 15년을 변함없이 지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없어져도 몇 번은 없어져야 했을 교회, 망했어도 몇 번은 망했을 교회인데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 주심으로 지금까지 잘 지내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지혜나 물질,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이 교회가 매년 하나님 안에서 강건해지는 역사를 체험해 나갈 것입니다. 성도님들도 이런 예수마음교회의 여정을 존중해 주시고 앞으로의 여정에 함께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목회자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사람들입니다.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도 아니고, 사무를 하는 사람도 아니며, 세속적인 직업에 종사하듯이 쉬지 않고 일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고(엡5:18-21),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여(골3:16-17)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삶에 힘쓰며, 이런 삶을 살도록 돕는 사람입니다. 성경적인 삶을 교회와 가정, 다양한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고, 또한 성도들로 성경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성경적인 지도자가 목회자입니다. 말씀과 기도(목회자의 일), 안식, 교제를 풍성히 가지면서 하나님께로부터 흘러 나오는 것을 성도들에게 공급하는 사람들입니다.

| 반승수 목사 |

저는 1970년 전주에서 믿음이 없는 부모님 슬하에서 4형제와 함께 자라났습니다. 학업은 전주 상산고, 부산 한국해양대학교를 거쳐 서울에 있는 장로회신학대학교를 졸업 후, 고양시에 있는 에스라성경대학원 대학교에서 성경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은 초등학교 1학년 때에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80년대 기장교회의 민중운동 속에서 말씀과 기도가 없이 친구들과의 만남에 의미를 둔 교회 생활을 하면서 신앙 없이 대학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대학에서 세상 문화에 빠지면서 교회에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2년 정도의 방황은 2학년 말에 네비게이토를 통해서 주님을 알게 되면서 끝나게 되었고, 그곳에서 신앙생활의 기본기들을 익혔습니다. 1990년 말부터 새벽 기도와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서 풍성한 삶을 경험하게 되었고, 복음을 전하면서 그리스도를 나누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면서 질병으로 군대를 면제받으면서 목회자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1996년에 장신대에 입학하면서 신학함을 배우게 되었고, 아나톨레를 통해서 말씀의 깊이를 더해갔고, 소중한 세 명을 친구들과의 매일의 기도의 시간

을 통해서 영성을 쌓아가게 되었습니다.

1년간의 터키 선교를 통해서 홀로 하나님과 독대하는 삶을 훈련하게 되었고, 열방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회교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구약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함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장신대를 마치고, 2000년에 에스라 성경대학원 대학에서 매일 지속적으로 전심전력하여 성경을 공부하면서 성경 66권을 공부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그 후 아나톨레 간사로 7년을 섬기면서 매주 신학생과 목회자들과 적게는 3번, 많게는 8번씩 말씀을 나누면서 성경 66권을 풍성하게 공부하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사역지는 남광교회 전도사, 동천교회 전도사, 창동교회 전도사와 부목사로 섬기면서 교회의 일꾼으로서 주님께서 자라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가족은 신정민 사모와 7명의 자녀들(석, 하륜, 하일, 하빛, 이엘, 아람, 예빛)이 있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것이 기쁨이고, 복음을 더 깊이 깨달아가는 인생의 동반자들입니다.



3 **주일예배**

(오전 9:30, 오전 11:00)

예배 전에 한 주간의 감사의 시간을 먼저 가집니다. 그후에 헌금은 자신의 형편에 따라 정성껏 준비해 와서 무기명으로 헌금함에 드립니다. 따로 헌금 시간을 갖지 않습니다.

예수마음교회의 예배는 가능한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는 것을 통해 부모의 신앙이 자연스럽게 자녀들에게 이어지도록 합니다. 아이들이 우는 소리, 뛰는 것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받아 주시고, 앉아 주시고, 웃어 주는 멋진 어른들이 되어 주십시오.

개인 예배, 가정 예배도 나름의 역할이 있지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의 공동체 예배는 머리되신 예수님을 몸으로서 체험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잇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

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 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는 엡2장 말씀대로 모퉁잇돌이신 예수님 안에서 서로 연결되고,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 꼭 있어야 합니다. 혼자 예수님을 드러낼 수도 없고, 홀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부족한 공동체 식구들과 함께, 연약한 교회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가는 은혜를 공동체 예배를 통해서 누리도록 합시다. 어떤 것도 공동체 예배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2천년 교회사에서 박해와 순교를 하면서도 지켜온 공동체 예배를 우리도 소중하게 지켜 나갑시다.



4 예배 및 모임 안내

- 주일예배 : 매주일 오전 9시 30분과 10시 30분에 드립니다.
- 새벽기도 : 월~금 오전 6시 30분, 매일성경과 성경책별 강해를 중심으로 드립니다.
- 화요 · 수요 성경공부 : 오전 10시에 가질 예정입니다.

우리는 예배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인되심을 인정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말씀의 시간, 기도의 시간, 찬양의 시간이 모두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말씀도 세상 나라와 의에 대한 이야기가 많고, 기도도 역시 우리 민족을 위한 기도와 세상에서 성공을 위한 기도들이 많아 안타까워 했습니다.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의 주인되심과 하나님 나라로 충만해지도록 합니다.

● 말씀

좋은 교회나 성공한 교회가 목표가 아니라 성경적인 교회를 바라보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경을 공부하지 않으면 성경적인 교회도, 성도도, 사역도 다 불가능합니다. 성경은 모든 가치관의 기초가 되어야 하고, 삶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성경 66권을 공부 할 주중 프로그램과 아침과 주일설교를 들을 기회를 갖도록 합니다. 설교는 강해설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성경공부도 역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 가도록 하는 공부를 중심으로 할 것입니다.

● 기도

기도는 내가 말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시간입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을 구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시간입니다. 모였을 때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이 주가 아니라 골방에서 홀로 하나님 앞에 있는 다니엘처럼, 굴과 광야에 수풀에 있던 다윗처럼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이 주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는 응답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깨닫는 시간입니다. 때로는 거절되기도 하고, 미뤄지기도 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하심을 알면 행복합니다. 기도의 행복이 응답받음이 아니라 신뢰가 깊어지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기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기도는 많이 하시는데 성격은 급하고, 자기 주장이 강한 분들도 많습니다. 중언부언하고, 수백번 하나님 앞에서도 우겼던 사람이 사람 앞에서는 얼마나 더 우기고 자기 주장이 강해질까 싶습니다. 기도에서 자기 주장, 자기 기도제목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인 사람은 사람 앞에서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면서 삽니다. 기도가 자기 부인과 십자가로 가득찬 시간임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 찬양

찬양은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한 사람들에게서 흘러나오는 자연스런 영적 반응입니다(골3:16, 엡5:19-20). 찬양은 예배의 찬양과 함께 삶의 찬양이 흘러 나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있어야 하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이 있어야 합니다.

● 헌금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헌금은 어떤 대가를 바라거나, 다른 목

적이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금은 무명으로 합니다. 그리고 돕기 원하는 사람의 이름을 기록해서 성도의 나눔이 있도록 합니다. 또한 헌금은 기부금이 아니기 때문에 기부금 영수증도 발급하지 않습니다.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세금 혜택을 받지 않더라도, 더 온전하고 깊은 사랑과 기쁨으로 헌금하고,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않도록 합니다. 또한 헌금을 통해서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이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헌금을 너무 많이 하거나, 헌금함으로 가족과 이웃을 향한 섬김을 다 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헌금은 목회자와 교회, 성도들 간의 교제를 하는데 필요한 정도로 힘껏 하시고, 어느 정도 일정량의 금액을 항상 가족과 이웃을 향해서 사랑의 물질로 사용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지혜롭게 계획하시고 율법적인 십일조에 매이지 않고, 진정한 십일조가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5 교회생활 안내

● 교회등록안내

처음 오신 분들에 대해서 기쁘고 적극적으로 맞이하지만 등록은 자유롭게 하도록 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목회자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 새벽기도와 아침예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합니다. 말씀묵상과 주기도문 중심의 기도 시간을 아침 5시 30분 부터 6시 30분까지 가집니다. 6시 30분 부터 아침예배를 합니다. 예배 후에는 교회에 머물지 않고, 속히 가정으로 돌아가서 가정을 섬기도록 합니다. 설교는 각 책별로 강해설교로 진행됩니다.

● 주일의 예배와 삶

주일 예배는 오전 9시 30분과 11시에 있습니다. 각 예배 후에는 다른 어떤 것보다 성도들과의 교제에 힘을 쏟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성도들 모두가 개인적으로 꼭 인사를 나누고 안부를 묻는 일 한 주도 쉬지 않고 해가면서 성도의 교제를 깊이 가지길 간곡히 권고합니다. 교제를 하실 때는 기도제목과 감사제목을 나누도록 합니다. 교제가 없으면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도 없어지고, 기도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한 가족이라는 마음도 상실됩니다. 몇몇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분들과 풍성한 교제를 나눕시다.

상황에 따라 교제하면서 나눌 간단한 간식과 커피와 차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일에는 분주하지 않게 보내고 오후와 저녁 시간은 교회 가족 또는 가족들이 함께 지내면서 일상에서 나누지 못한 성도들의 교제와 부부간의 대화, 자녀와의 대화, 부모와의 대화의 시간을 갖습니다.

● 자녀들에 대한 안내

주일예배는 자녀들을 포함한 예수마음교회 온 성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님들은 교회에서 아이들을 야단치기 보다는 집에서 미리 교회에서 조용히 예배에 집중하도록 가르쳐 주시고, 교회에서는 아무리 떠들어도 꾸중

을 하지 않도록 합시다. 교회가 꾸중 듣는 곳이 되지 않도록 합시다. 교회에서 자녀들도 친구들과 예배 후에 충분히 뛰놀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10년, 20년 뛰놀고 교제하면서 자녀들이 평생의 친구(배프)를 교회에서 만날 수 있도록 합시다.

● 교회 봉사

교회 활동이 중복되거나 한 사람이 너무 많은 짐을 지지 않도록 합니다. 예를 들면, 교사도 하고 구역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선교회도 하고 전도대도 하는 일이 빈번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예수마음 교회는 일보다는 오직 예배와 성도들과의 교제에만 집중하시도록 하려 합니다.

교회는 일하러 오는 곳이 아니라 예배하러 오는 곳이며, 성도간의 교제를 하기 위해서 와야 합니다. 일이 거의 없는 교회가 되도록 하려고 합니다. 무슨 일을 해야 하나 하는 관심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마음을 쏟고, 성도님들과 교제하는데 힘쓰시면 좋겠습니다.

● 목상모임

목상 모임을 필요한 분들이 함께 모여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주일보다는 주

중에 교회에서 목상을 나누고 싶은 분들을 중심으로 가지도록 합니다. 언제든지 목상모임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목회자에게 말씀해 주시면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 심방

심방은 가정의 교육수준이나 경제수준을 파악하고 판단하거나 침해하려는 목적이 아닙니다. 또한 개인을 만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대체적으로 심방이 개인적인 만남이 대부분이고 공동체적인 만남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만남을 부부끼리의 만남, 자녀들 간의 만남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친밀성을 가지기 위함입니다. 심방이 반쪽도 안 되는 심방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을 심방해야 하는데, 여성도만 심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심방은 10번을 해도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심방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친밀성이 많이 상실되고 기계적이 되기 쉽습니다. 예배 후에 식사는 자제하고,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간단한 차를 나누면서 삶을 나누는데 집중하도록 하려 합니다. 이런 의도를 존중해주시면 좋겠습니다.



6 교육

교육도 역시 주권이 중요합니다. 양육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딤후 2:11-14). 우리는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며, 그가 우리를 쉬고 살찌게 하십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하나님의 자리를 침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양육자이심을 이해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살도록 합니다. 하나님께서 양육자가 되도록 하는 일에 힘을 쓸 것이고, 아이들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며, 교인들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데 집중하도록 할 것입니다. 목회자와 성도는 양육자와 양육을 받는 자가 아니라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는 삶을 양방향으로 살아가는 관계입니다.

- **자녀교육**

교육에 대한 기본 생각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목회자나 교사

에게 맡긴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부모가 해야 합니다. 신앙 교육이나 모든 교육의 중심에는 늘 부모가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일예배 짧은 시간의 예배와 공과공부로는 헛된 철학과 사상, 세상적인 가치관을 이겨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돈 중심, 물질 중심, 욕망 중심의 세상에 자녀들을 빼앗기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일은 자녀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친구들과의 교제를 마음껏 누리면서 함께 즐기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교회 친구나 선배가 평생의 친구, 인생 선배들이 되도록 주일을 비워두도록 합니다. 자녀들이 교회 친구들과 뛰노는 시간에 부모님들도 서로 자녀교육에 대해서 조언을 구하고 상담하는 일을 힘쓰면서 경험과 지혜를 주고 받아야 합니다. 늘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육의 아버지인 나보다 영의 아버지인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더 사랑하시고, 더 좋은 계획을 가지심을 알고 늘 하나님 아버지를 자녀들이 알아가도록 힘써야 합니다.

- **새신자 교육**

새신자 교육은 3주에 걸쳐서 합니다. 예수마음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이 예수마음교회를 잘 이해하고,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안내하고, 성경을 어떻게 읽고 묵상해야 하는지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성도들을 소개함으로써 성도간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궁금한 점, 그동안 교회생활을 하면서 겪은 어려움을 나누고 상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주차 | 예수마음교회 소개 및 생활 안내 (안내책자)

2주차 |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3주차 | 성도들의 가정과 삶, 교회생활 나눔

지금까지 부족함 투성이인 목회자와 성도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마음교회를 여기까지 돌봐주신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무쪼록 저희 교회를 통해서 몇몇 사람이라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인생을 살아가는 일이 일어난다면 이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떤 마음으로 사셨을까?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사람들을 보셨을까? 하는 질문과 답이 삶에서 계속 떠오르고 생각나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의 심장이 이식되는 은혜가 있길 소망하며...

